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그리고, 천년의 평화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에 나타난 아포칼립스(Apocalypse) 시각연구*

이지원**

I. 서론	<i>One Thousand Years of Peace</i>
II. 아포칼립스(Apocalypse)의 개념과 해석	(2010)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시각
III. 대중매체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성향	V. 결론
IV. 「그리고, 천년의 평화 <i>And Then,</i>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는 강력한 움직임과 함께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랑스 안무가이다. 이 시대가 낳은 그리고 시대를 이야기하는 ‘철학하는 안무가’라 해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¹⁾ 그는 2010년 러시아에서 볼쇼이 발레단과 앙젤랭 프렐조카주 무용단이 협작을 이루어 초연을 완성한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가지고 2012년 내한하였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담아낸 것이라 인터뷰한 바 있는데²⁾ 본 논문은 오늘날 유행어가 되다시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5875)

**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사, wjoinlee@empal.com

- 1) 이지원(2012),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이것은 나의 몸이다 *Ceci est mon corps MC 14' 22"*」에 나타난 타나토스 이미지, 『무용예술학연구』, 39(6), p.118.
- 2) The Indian Press(<http://www.indianexpress.com/picture-gallery/apocalypse--now-and-forever>)

한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로 본 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아포칼립스의 의미는 인간세계의 종말, 혹은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프렐조카주가 바라보는 혹은 이 시대가 말하는 세계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파괴와 동시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프렐조카주의 유토피아적 구성과 더불어 현세계의 새로운 출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의 직설적이며 솔직한 몸짓과 철학적 사유는 작품 속 무용수의 몸짓에 녹아져 시대를 대변하며 우리의 나아갈 모습에 관한 시대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아포칼립스’는 어떠한 역사를 지니며 어떻게 해석되어왔는가? 또한 대중매체와 예술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의 경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프렐조카주의 작품에서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그의 작품은 추상성이 강하고 의미를 구조화하기에 난해한 성향을 포함한다. 물론 앙젤랭 프렐조카주에 관한 논문³⁾을 통해 그의 경향성을 추출할 수 있으나, 아포칼립스라는 시각으로 선행된 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는 단락별 구성을 성경의 말씀에 대입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현 시대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다루어지는 아포칼립스적 시각을 춤에 적용하여 읽어내며, 의미를 도출하는데 중요성을 두고자 한다.

작품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2012년 5월 내한 시 본 작품을 직접 감상하였고, 2010년 초연 시 불쇼이 발레단과의 공연 영상을 부분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무용수들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안무가가 강조하는 작품에서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본 작품에 관한 평론과 기사가 의미

3) 태혜신(2005년),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Les Noces’ 작품 분석, 『우리춤연구』 1: 231-244.
이지원(2012), 앙젤랭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이것은 나의 몸이다 *Ceci est mon corps MC 14' 22"*」에 나타난 타나토스 이미지, 『무용예술학연구』, 3(6). 111-136.

와 표현을 도출하는데 보탬을 주었다. 이를 기초로 기표와 외시적 의미를 통해 잠정적인 가설에 따르는 함의를 도표로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아포칼립스의 의미와 해석에 관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아포칼립스의 해석을 역사와 대중예술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춤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성향의 예술작품을 나열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그리고, 천년의 평화」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단하여 볼 것이다. 향후 본 연구가 시대적 주제라 할 수 있는 아포칼립스의 의미를 언어화하고 동시에 프렐조카주에 관한 작품 해석의 다양성과 분석에 미미하나마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독자적인 세계의식과 주제의식을 가진 컨템포러리 시대의 작가가 말하는 아포칼립스의 방향과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II. 아포칼립스(Apocalypse)의 개념과 해석

아포칼립스는 사전적 의미⁴⁾로 ‘묵시’나 ‘계시’를 뜻한다. 아포칼립스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Apokalyptein)에서 근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더(The)를 붙여 아마겟돈과 종말론을 예언한 『요한 계시록 *The Revelation*』을 지칭한다. 그리하여 아포칼립스는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대한 시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포칼립스는 인간 사회의 파멸이나 참극, 재난, 참사, 재앙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며 대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나, 핵전쟁의 의미로 뉴클리어(nuclear)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종말이 최근의 담론은 아니다. 종말에 관한 역사는 초기 기독교의 신학에

4) 사전(American Heritage)에서는 명사로 첫 번째는 ‘파멸’(devastation), 두 번째는 성서에 묘사된 세상의 종말(A prophetic disclosur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재앙(destruction)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류의 파멸, 대재앙, 세계 종말적 위기를 뜻하는 것이다. (*The American Heritage College Dictionary*(third Edition)(1993), NY: Houghton Mifflin Company, p.63).

서부터 출발하여 오랜 시간의 축적을 이루었다.⁵⁾ 과거에서 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인류사와 맥을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7세기 후반 프랑스 푸아티 인근 지하교회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모든 것이 날마다 나빠지니 종말이 가까웠도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노스트라무스가 지구 멸망을 예언하여 한때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2012년에는 12월 21일 24시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마야인의 예언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다.⁶⁾ 이렇게 과거에서 부터 끊임없이 아포칼립스에 관한 언급은 계속되어 왔고 현세의 중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커져가는 삶의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종말은 늘 멀지 않은 것으로 현존하고 있는 징후였다. 지난 수년간 대지진, 해일, 조류인플루엔자, 사스(SARS), 이상기온, 변종동물 등의 일련의 사건은 정치와 경제에도 파급되어 대중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였다.

최근 종말에 관한 해석은 담론에서 이론으로 구축되었다. 많은 저서들이 출간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종말이론이라 불리며 종교적 틀 뿐 아니라 권역 밖에서도 인류사와 맥을 같이 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도 한 것이다. ‘종말은 과연 언제인가’, ‘우리에게 예정 없이 닥칠 것인가’ 하는 대중적 관심사만 집중하기 보다는 ‘종말론이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는 연구의 성과도 이룩하였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다. 프렐조카주가 계시록에서 부터 작품이 발단되었다고 언급하였기에 간략하게나마 이에 관한 역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A.D. 81-96년)시기에 기록된 것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이며 냉혈적인 박해자로 고대의 여러 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탄압하였다. 로마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황제를 ‘가이사는 주’라고 고백하여야 했

5) 고병임(2006), 아포칼립스 이미지와 영상미학, 『카프카 연구』 15 p.69. 재인용.

6) 인류사상 최고의 시간과학자로 평가받는 마야인이 장기계산법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내린지 만 천 년 만에 태양이 지구에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이었다. (로렌스 E. 조지프(2007), 『아포칼립스』강미경(역)(서울: 황금나침반, 2012), pp.31- 32).

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가이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두려움과 절망에 떨어야 했다. 이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이었다. 악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승리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요한을 통해 소망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계시를 통해 불안에 떨던 이들은 평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인간에게 삶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세상에도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오랜 역사로 이어졌고 사회적 위기가 찾아올 때 마다 벌어질 일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은 수많은 종말론을 낳았다.

따라서 종말은 하나의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종말론은 끝을 상상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절망과 희망의 변증법적 구조를 지닌다고 하겠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대 격변을 통한 희망의 끈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말론은 더 이상 황당한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정신세계의 출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아포칼립스는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인간의 종말, 문명의 파괴를 만들어내며 예술작품 속에 담아졌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인간성의 함몰 그리고 위협적인 첨단 기술에 관한 두려움은 이에 관한 공포로 이어졌고 지구 충돌이나 세계대전, 전염병, 인공지능의 슈퍼컴퓨터, 핵전쟁, 자원 고갈, 외계인 출현, 좀비와 같은 재앙의 형태로 대중의 근심과 불안이 창조적 상상력에 기인하여 표출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간략하게 대중매체와 예술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성향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III. 대중매체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성향

1. 아포칼립스의 이미지

인간의 근본적인 삶과 죽음에 있어 구원과 희망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의 정신적 퇴행은 아포칼립스적 환상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관한 호기심과 관심은 예

술의 소재로 혹은 문학적 테마, 영화의 소재로 재생되었다. 최후의 날에 관한 상상력과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는 문화와 예술 전반에 큰 흐름으로 자리하며 이를 상징적으로 극복하려는 예술미학적 시도들로 나타났다.



〈그림 1〉 영화 「설국열차」 포스터

영화에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생성되었는데 이는 거대한 재앙이 닥친 후에 파멸한 세상을 다루는 것이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핵전쟁이나 대규모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거나 무정부 상태가 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장르를 말한다.⁷⁾ 여기에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에 관한 재앙, 두려움, 파국, 문명재건의 가능성 등을 보여준다. 인류에 관한 허망함이나 고독함을 부재된 공간으로 이끌고, 새로운 개척과 부활로 인도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담겨지기도 한다. 2013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나 닐 브롬캠프의 「엘리시움」, 그리고 마크 포스터의 「월드 워 Z」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미래세계에 닥칠 기상이변이나 질병, 좀비바이러스에 관한 아포칼립스적 시각이 담겨있다. 이 외에도 잘 알려진 흥행작 「터미네이터」(1984), 「아마겔론」(1998), 「투모로우」(2004), 「매트릭스」(1999), (2012)나 「딥 임팩트」(1998), 「이천십이년 2012」등도 인류파멸과 재앙적 이미지를 담고 있기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의 흥행열풍을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영화 뿐 아니라 소설,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상상력의 표현이 가능한 언어와 그림을 통해 다채로운 내용과 스케일로 미래적 인간군상을 조명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게임 ‘메트로 시리즈(Metro: Last Light)’의 내용은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미래에 지하철로 숨어든 인류의 암울한 삶을 그리고 있다. 핵전쟁이 끝난 지 수 십년이 되었지만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해 방독

7) 진주현(2011),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신화론적 의미 구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pp.1-2.

면 없이 지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세상에는 온갖 돌연변이 괴물들이 성행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또한 소설 『종말일기Z』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확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작가 마넬 로우레이로는 단 한편의 소설로 ‘스페인의 스티븐 킹’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종말이라는 소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는데 큰 발판을 제시하였다. 뒤이은 소설들은 흥행을 예감하며 소설 공모 단편집에 수록된 『종말대환영』, 조이스 캐롤오츠의 『좀비』, 영화로 제작된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 Z』, 아이작 마리온의 『웬바디스』 등 출판을 이어나갔다. 심지어는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홍보 문구에 종말을 넣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도 보여진다. “처연한 결핍의 종말 소설”이라는 표제로 사쿠라바 가즈키(櫻庭一樹)의 작품 『내남자』는 흥행대열에 합류했다.



〈그림 2〉 영화 「웬바디스」 포스터

최근에는 대중춤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좀비 춤이다. 좀비는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이 이를 움직임과 표현으로 만들어 선보였다. 근래에 『웬바디스』와 같은 소설이 이후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흡혈귀나 좀비의 등장은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은 존재가 되었다. 한국 가수 사이니나 현아는 기존에 행하지 않았고 신선하고 특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좀비 춤을 창안하였다.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의 강점을 지니며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친숙한 캐릭터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이것은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포칼립스에 관한 오락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컨템포러리 춤에 나타난 아포칼립스

컨템포러리 춤에서 아포칼립스적 시각을 담은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중매체와는 달리 무대에서 이러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상상력을 연출하고 미래 사회를 표현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

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이스마엘 이보의 「아포칼립스」

이스마엘 이보(Ismael Ivo)⁸⁾는 작품 「아포칼립스 *Apocalypse*」를 안무하였다.⁹⁾ 피아니스트 타카시 카코(Takashi Kako)와 함께 1989년 일본에서 초연하여 주목을 받았다. 대기술이 자연을 지배하며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촉발되는 아포칼립스적 인간의 두려움을 솔로 움직임에 담고 있다. 격정적이고 고통스러운 표현으로 재앙의 전조를 다양한 몸짓으로 보여주었으며 흰색 천으로 만들어진 짧은 바지의상에서 자연으로 귀속되는 인류의 몰락을 그렸다. 여기에는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인 교만과 동시에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표현이 잘 녹아져 있다. 어찌 보면 기술문명의 몰락을 예견하며 절대자에 관한 잔혹한 호소와 절규가 녹아진 움직임으로 보인다.

2005년 한국에서 신작으로 선보인 벨기에 춤의 핵심 동력 빔 반데키부스(Wim Vandekeybus)의 작품도 아포칼립스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순수 *Puur*」¹⁰⁾는 인간의 폭력적이며 원초적이며 욕망적인 색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화를 모태로 유아학살에 관한 테마가 작품의 영감을 불어 넣었지만, 이것은 인간성 상실로 치닫는 인류 종말에 관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갔고, 이것은 인류의 근원적인 소망이었으나 결국 절

8) 이스마엘 이보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연극과 춤을 공부하고 1979년부터 3차 레나 최고의 솔로무용가상을 수여받았다. 1983년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엘빈 에일리 무용단의 멤버로 96년까지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후 독일에 건너가 많은 안무가들과 함께 협작을 선보인바 있다. 본 작품은 89년도에 초연하여 93년까지 전 세계에서 일본 피아니스트인 타카시와 지속적인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후 10여년 간 비엔나의 페스티발(International Tanzwochen Wien festival)에서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2002년에는 새로운 창작품M.-like Callas를 마르시아(Marcia Haydee)와 듀엣으로 선보였으며 2005년에는 영국 타임아웃어워드(Time Out Award)에서 최고의 공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ImPulsTanz(<http://www.impulstanz.com>))<2006. 9. 9.>

9) 유튜브에서 이에 관한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femZgThWbJw>)

10) 유튜브에 이에 관한 클립이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JEfUiP9x3n0>)

대자를 통한 몰락을 앞당기게 된다. 특별히 첫 장면에 등장한 가스에 강조점을 찾을 수 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쓰러져 버린 무용수들은 죽음을 암시하며 핵전쟁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아포칼립스적 이미지이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고이며 동시에 폐허가 된 지구의 미래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더불어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인간의 최종 결말은 결국 절대자에 의해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안무가 우현영도 과학발전에 따른 유전공학의 진보와 인류 종말의 이야기를 춤 작품에 담았다. 사실 영화나 소설과 달리 공상과학과 같은 주제를 여러 여건상 무대에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2002년 「라스트 맨 *The Last Man*」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제즈페스티벌에서 인류의 종말에 관한



〈그림 4〉 우현영의 「라스트 맨」 (2002)

다양한 상상력을 무대 위에 실현하였다.¹¹⁾ 유전공학과 인간 복제 그리고 초대형 컴퓨터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인간은 기계와 차이를 둘 수 있는가? 현재의 과학발전을 주도하며 공학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지만 이에 관한 시각을 한 발 물러나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사실 2002년 한국은 인간복제에 관한 무한한 상상력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졌던 때였다. 체세포 돼지 복제가 국내에서 첫 성공을 거둔 해이기도 하였다. 단태의 소복제에 이어 다태라는 진보된 돼지 복제가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돌이라 명명된 복제된 아기돼지들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도 인간복제에 관한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성과와 관심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판과 문제는 가려진 채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녀의 작품에는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적 시각을 담고 있다. 압도적인 긴장감과 파멸적인 색채의 어두운 이미지와 무대 연출이 돋보인다. 게다가 박운정 디자이너의 사이보그적 이미지를 담지한 독특한 의상이 눈에 띈다. 인류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남은 인간의 죽음과 눈물, 슈퍼컴퓨터의

11) 「포즈댄스시어터 작품영상모음집」 (2002-2003)

등장, 대량으로 복제된 인간의 모습과 절도 있는 구성과 움직임은 도구 이성의 상상력과 환상이 테크노피아를 창출하기 보다는 인류를 멀하게 하는 디스토피아를 낳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이기인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의 개발 등이 세계 인류의 종말에 있어 주요 원인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이 어떻게 우리를 재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국 춤의 첫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아포칼립스적 시각을 담은 작품은 종말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포칼립스가 가지는 이데올로기는 과거의 잘못이나 사회 속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통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지금의 모습은 근절되어야 할 폭력적이고 옳지 않은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지점의 가치관이나 인식은 종말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암시하며 현재의 모습에 관한 반성과 동시에 오류를 극복하고자하는 시각이 포함된다.

최근 아포칼립스라는 이름으로 무용단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내 남성으로 구성된 아포칼립스 댄스 트룹(Apocalypse Dance Troupe)은 스트리트와 힙합을 접목한 대중적 움직임을 표방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아포칼립스 댄스 크류(Apocalypse Dance Crew)라는 무용단도 탄생하였는데, 여기에는 트리샤 카(Trisha Carr)의 안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의 소웨토(Soweto)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단체의 명칭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 역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서 전달하는 다양성과 극단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중춤을 선보이는 그룹으로 대중을 겨냥하고 이들의 요구와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아포칼립스는 현시대인들이 공감하는 우울한 연대의식과 함께 무한한 사유와 상상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끝장판’이라는 의미로 보편성을 띠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한 형태라 하겠다.

IV. 「그리고, 천년의 평화」(2010)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시각

1. 앙젤랭 프렐조카주에 관한 소개와 작품 개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놀라운 소재와 주제로 변화를 추구하는 프렐조카주는 알바니아 혈통의 프랑스 무용가로 1957년 프랑스의 수시영 브리(Sucy-en-Brie)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마리 뷔그만의 제자 카린 웨그너(Karin Waehner)에게 현대 무용을 배워 춤계에 입문하게 되었고¹²⁾ 이후 머스 커닝햄에게 현대무용을 훈련받았다. 비올라 파버(Viola Farber), 도미니크 바구에(Dominique Bagouet)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그의 무용단을 창설하여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주로 협업을 이루어 작업하는데, 발레단과의 협작이 두드러진다. 리옹 오페라 발레단과, 파리 오페라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등과 함께 하였으며 1993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발레 프렐조카주를 창단하여 악스앙 프로방스(Aix-en-Provence)를 주 무대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1996년에는 발레 루스의 작품 「퍼레이드」, 「장미의 정령」, 「결혼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방문한 바 있고, 2012년에는 아시아초연으로 「그리고, 천년의 평화」가 모다페의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내한한 바 있었다.¹³⁾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생각거리와 고민거리를 남겨주었고 철학적 사유와 성찰을 제시하는 작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1999년 베를린 오페라 발레의 예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98년 레지옹 도뇌르 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1990), 1997년 베시상을 수상한 「어논시에이션 *Annonciation*」(1995), 「미디어의 노래 *Le Songe de Médée*」(2004), 「그리고, 천년의 평화 *Suivront Mille ans de Calme*」(2010) 등 다수가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올해의 신작 「나이트 *The Nights*」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천년의 평화」는 2010년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Bolshoi Ballet)과 앙

12) 이지원(2013), 『춤 테마로 읽다』(서울: 두술), p.465.

13) 이지원(2012), p.111.

젤렝 프렐조카주(Angelin Preljocaj)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불어로는 'Suivront Mille ans de Calme'로 표기되었고 2012년 한국에서는 영어로 제목이 붙여졌다. 21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군무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이인무와 이성과 논리로 읽어지는 구성과 연출, 그리고 움직임이 다채롭다. 불쇼이 발레단과 프렐조카주 무용단 각각 10명과 11명의 무용수가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본 작품을 위해 매일 12시에서 6시까지 4개월간 특훈을 하였고 혼신의 노력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였다. 또한 인도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수보드 굽타(Subodh Gupta)가 참여하여 미래 사회의 구조적이고 부식되고, 물질적인 면모를 무대 디자인으로 선보였고, 프랑스의 테크노 디제이 로랭 가르니에(DJ Laurent Garnier)가 음악을 담당하여 기계음과 고전음악을 환상적으로 결합시켰다. 의상은 이골 샤프랭(Igor Chapurin)이 맡았고 조명은 세셀 지오반실리(Cecile Giovansili)가 함께 하여 최상의 조합을 이루었다. 다음 절에서는 아포칼립스를 이루는 메타포 혹은 표징 들을 추출한 이미지를 연구하고 기표를 토대로 외시적 의미를 살피며 미학적 함의를 해석하도록 할 것이다.

2. 「그리고, 천년의 평화」(2010)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시각

본 작품의 곳곳에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을 테마로 하지만 구절 하나하나를 의미화하지 않았다. 또한 요한계시록 자체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불가하기에 이에 관한 뜻을 파악한다는 자체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작품을 '시적이고 인상파적'이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록하였다.¹⁴⁾ 그러나 그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춤과 몸의 언어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는 작품을 통해 종말의 세상을 관객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싶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계시적이거나 베일이 가려져 불확실한 것에 관한 가감 없는 의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방대한 작품이기에 시간순의 소소한 장면보다는 간략하게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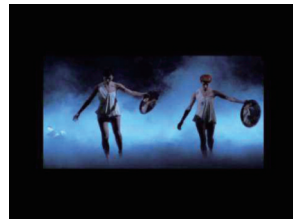
14) <http://www.preljocaj.org/menu.php?lang=en&m=1&a=4&m2=81>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 작품을 살피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재앙적 징후와 디스토피아적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계시록의 예언적 함의”이며, 마지막으로 “인간 존재라는 물음을 통한 휴머니즘의 복원”라는 주제이다.

가. 재앙적 징후와 디스토피아적 이미지

무용수들은 살색 타이츠를 입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정렬된 군무의 몸짓에는 캐논과 같은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의 온몸을 쓰다듬고 확장된 선과 점프 동작을 통해 정형화된 사회의 모습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연출한다. 작품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듯, 개성 있는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이러한 집합들이 모여 아포칼립스라는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 사회 속 ‘재앙적 징후’와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다.

여성듀엣의 등장과 함께 무대를 가득 채우는 것은 스모그이다. 계시록에 관한 테마를 가지는 작품에서 스모그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가스는 폭발, 공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다. 연기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폭발 순간의 경악을 더욱 가중시키며 사라져버릴 인류의 희생적 그림자를 떠오르게 한다.



〈그림 5〉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재앙적 징후 이미지

구석구석마다 세계의 뇌에서 나온 분노로부터 발생된 가스들이 몰려든다. 문화는 숨을 돌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사용할 정신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신을 쏟아서 발명한 인류의 발명품들 곁에는 마침내 인류가 죽은 채 누워있다.¹⁵⁾

위의 글은 대표적인 아포칼립스 작가 칼 크라우스(Karl Kraus)의 ‘아포칼립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무대 위에 듀엣의 움직임은 마치 인류최후의 날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다. 두 여성무용수의 등장은 여전

15) 목승숙(2006), 아포칼립스 시대의 아포칼립스, 『뷔히너와 현대문학』, p.1.

사의 모습과도 같다. 핵가스로 인해 자욱한 거리는 인류의 전멸과 황량한 미래사회에 관한 어두운 경고와도 같이 느껴진다. 등근 방패와 같은 철재소품을 들고 등장하는데, 절도 있으며 경직된 움직임은 대조와 대칭을 이루어 선보인다. 찢어지는 핑음과 함께 들리는 기계음은 미래적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우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보된 문명의 복제된 두 실존체를 보는 듯하다.



〈그림 6〉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디스토피아 이미지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는 세트에서 강하게 전달된다. 거대한 구조들은 인간의 투쟁과 근심들을 대변하며 높은 형태의 벽으로 우뚝 서있다. 이러한 폐쇄적 성격은 개방되지 않은 세상 속 폭력과 비도덕 등을 말한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 신뢰와 협력이 사라진 폐쇄성으로 대립과 함께 불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벽 사이에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관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발산한다. 세 명의 여성 군무가 빠른 전자 음악에 맞추어 검정 옷을 입고 격정적인 춤을 춘다. 무용수들의 절렬한 몸짓과 움직임은 마치 중세 시기의 죽음의 춤을 떠오르게 한다. 딱 붙는 타이즈의 착용과 분절적인 몸짓은 해골의 모습과도 같다. 혹은 세계대전 이후 댄스 마라톤이나 현대에 이르러 로큰롤 음악에 반응하는 광적인 움직임이 이루는 절망적인 사람들의 표현처럼 보인다. 혼란과 혼동의 몸짓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참혹상을 말하는 듯하다.

또한 남성무용수들이 등장하여 커다란 두개의 벽 사이에 서있다. 그러나 벽으로 구분된 공간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서로의 영역을 탐하고 도전하며 동시에 타자라는 경계를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선 자와 올라서지 못한 자, 그리고 지배한 자와 열등한 자로 구분되는 움직임이 선보인다. 인간 사회 속 문명과 비문명, 지식과 무지, 형식과 야만이라는 구도 속에서 정복하고자 하는 시각이 투영되어 삼키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을 두게 하려는 움직임과 연출이라 하겠다. 남성무용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세트에 올라서고 또 다른 세트로 이동하며 넘나드는 모습은 고립된 존재의 욕망과 동시에 탐욕을 드러

내기에 충분하였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사일지 모른다.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모습을 강조한 부분이며 또한 인류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장면이라 하겠다.

작품에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큰 모자를 쓰고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성무용수의 몸짓이다. 상체의 동작은 유연하면서 부드럽지만 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머리에는 큰 쇠덩어리를 부착하고 있다. 이윽고 같은 복장의 또 다른 무용수



〈그림 7〉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황폐화된 문명의 상징적 이미지

가 계속해서 등장하여 3명의 무용수가 함께 벽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대량복제 생산에 의해 생성된 기계 덩어리와 같다. 인간의 몸뚱아리를 지녔지만 기형적인 머리와 과부화된 머리는 보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드는 돌연변이와 같다. 환경파괴로 인해 황폐화된 삶의 터전 속에 위태롭게 견고 있는 모호한 생명체이다. 또한 인간의 과대 사유와 지식이 탄생시킨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미래적 존재로도 보인다. 이들이 서있는 무대는 가히 풍요롭지도 부유하지도 않다. 혹독한 세상 속에 살아남은 생명체와 더불어 고독한 인간의 세상이다. 상실과 부재의 의미를 전달하며 무엇인가 바른 방향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디스토피아의 이미지는 절망과 탄압, 약육강식, 획일화된 기준에 관한 폭력, 환경파괴와 기형적 생명체와 같은 종말의 그림자로 나타난다. 황폐화된 세상에서 문명은 퇴보하고 상실된 인간성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세상은 파괴되고 종말의 순간에 인간은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 싸운다. 무대 위에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군무의 산발적인 움직임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인류의 부재라는 낯선 풍경과 함께 도시 속에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이 공존한다.

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계시록의 예언적 함의

본 작품은 폭력으로 얼룩진 변칙적 가치관과 미래 사회에 관한 분석으로 예언담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다. 작품의 시작은 혼돈 그 자체를 보여준다. 21명의 무용수들이 무대 위를 매우며 거칠고 빠른 움직임을 구사한다. 소음과도 같은 기계

소리와 비트감 있는 음악이 흐르고 에너지 넘치는 무용수들의 거침없는 몸짓은 계속된다. 쇠를 굽으면 나오는 듯한 잡음은 이후 음악의 정렬과 만나면 무용수들은 투명한 비닐을 뒤집어 쓴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나뉘어 움직인다. 남녀가 쌍으로 나누어져 테크닉의 구사를 이룬다. 상체가 좌우로 앞뒤로 격렬하게 움직이며 하체는 직선적 아름다움과 함께 점프동작의 구사로 이어진다. 조명을 받은 밝은 빛은 무용수들의 등과 머리에 빛나고 땅에서 움직이는 어두운 기운은 무용수들의 다리를 감싼다. 마치 허물을 벗어던지는 모습과도 같고 동시에 장사를 준비하는 듯한 이미지가 중첩된다. 한 무용수는 괴성을 지르며 날뛸듯 움직인다. 마치 요한계시록 서두에 “땅 속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나리라”라는 구절과도 같고 혹은 10절에 땅은 “흑암 속 혼돈으로 공허하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그림 8〉 「그리고 천년의 평화」중
흑암 속 혼돈의 이미지

먼저 요한계시록¹⁶⁾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전체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갑작스런 개입하심이 있겠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악의 세력은 파멸되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과 의의 실현 속에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확립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종말은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항상 조심하라. 그날은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마치 뿔처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자들을 끝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갑자기 닥칠 혼돈과 흑암에 대비하지 못한 이들의 몸서리치는 방향과 혼란스러움을 서두에 장식하는 듯 보인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악에 관한 세력은 지속적인 해석과 추측을 이루었다. 단지 성경 속에서 의미하는 사탄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뿔이 열인 짐승과 짐승의 표시 666’

16) ‘요한 계시록’은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예언의 책이다. 하지만 고통스런 현재적 상황은 이내 곧 종말을 맞게 되며, 하나님의 왕국이 곧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소망과 위안을 준다는 점과 상징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의 실체를 각각 유럽 공동시장과 신용카드로 이야기하기도 하며, 적그리스도는 종종 히틀러(1889-1945), 무솔리니(1883-1945), 고르바초프(1931-) 등과 같은 권력자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¹⁷⁾ 이렇게 성경은 이 시대에 기독교 신자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서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의 흐름과 함께 평화를 침범한 독재와 억압의 세력은 요한계시록을 빗대어 종말이 임박한 코드로 의미화 되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속박 속에 고통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 아니라 현재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작동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는 무용수들의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다. 그리고 작은 소품이 보는 이로 하여금 무엇인지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다.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 작품이라는 것과 종교적 의미를 동작을 통해 보물 찾기처럼 펼쳐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들 무용수들이 구절구절을 읽듯 집중하는 움직임은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성경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들은 입에서 성경을 떨어트리지 않으며 열을 지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무용수들이 무대를 가득 메우고 빠르고 격정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남녀로 구분된 무용수가 아니라 모두 같은 움직임과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해 겹층과 단층의 구성감으로 연출한다.



〈그림 9〉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인간의 무력함과 동시에 신을 향한 복종적 이미지

이들이 한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반응은 혼돈과 파멸적 분위기의 현 상황으로 인해 절대자를 붙들고 바라보는 인간들의 무력한 형상으로 대변된다는 것이다. 의상은 태초

17) 최승현(2007), 막스 베크만의 아포칼립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의 인간의 모습처럼 무(無)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모든 무용수들에게 평등하고 걸치레가 느껴지지 않는 자연빛의 흙색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현실적 고통으로 증대되는 고난과 황량한 공간속 어려움을 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프렐조카주가 아포칼립스적인 시각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 하겠다.

어느새 무용수들은 검은 색으로 예표된 의상과 조명으로 무대를 가득 메운다. 어두운 조명빛은 몽상적 성격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계음의 효과는 미래세계의 코드를 엿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가 안무 노트를 통하여 사회나 종교, 토속 신앙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이 처해있는 위치에 대한 부조화를 언급한 것처럼¹⁸⁾ 구성감을 깨고 산발적인 움직임을 행하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전하는 것이다. 무용수들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밀려드는 혼돈을 무대 위에 펼쳐 보였고 이를 통해 관객은 봉인이 풀렸다는 종말에 관한 예언을 떠올리게 한다.

안무가는 계시록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글로 대중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금세에 죄인이 지배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운명이 역전되고 의인은 새로운 세상인 천년왕국¹⁹⁾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세상의 혼란이나 고통,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행복이 도래할 것이라는 천년의 왕국에 관한 믿음을 담지한 표현이라 하겠다. 참담한 현실과 함께 긍정적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⁰⁾ 따라서 작품제목인 ‘천년의 평화’는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의미이다. 그러므로 프렐조카주가 말하는 천년의 왕국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인용은 세계 멸망과 심판에 관

18) 「2012 모다페 팜플렛」, p.28.

19)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왕국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동안의 시기’를 말하는데 성자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약속한 천년을 의미한다.

20) 유진 웨버(1990), 『세계사에 나타난 종말의 역사』 김희정(역)(서울: 예문, 1999), pp.217-218.

한 의미와 더불어 예언적 미래의 방향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 인간 존재라는 물음을 통한 휴머니즘 복원

프렐조카주의 모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성에 관한 폭력과 억압에 관한 메시지이다. 이전에 프렐조카주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서 보여주었던 테이블 위에서 펼쳤던 장면과 유사하다. 이번 작품에서도 남녀 듀엣과 함께 군무장면에서 이에 관한 장면이 삽입되었다. 군무가 등장한다. 얼굴을



〈그림 10〉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성적 탐욕과 타락의 이미지

모두 천으로 가리고 느린 몸짓을 이루고 있다. 알록달록한 천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움직이는데, 돌발적인 움직임 보다는 순응적인 움직임으로 일관하기에 이 색감은 동작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움직임은 괴기한 음향 속에서 유유히 진행된다. 그리고 갑자기 성적 타락이나 비도덕적인 몸짓에서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버린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성’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의 주가 되어버린 인간의 성적 탐욕과 타락에 관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 이에 관한 속고를 유도하고 있다. 남녀 듀엣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따뜻하고 정다운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외양 속에 숨겨진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듯하다. 인간의 내면에 위치한 근원적인 탐닉에 관해 말한다. 서로를 벽 위에 내던지고 몰아넣으며 과감한 터치와 동물적인 눈빛과 몸짓으로 가감 없이 인간의 성욕이라는 본질적인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면을 쓴 남성의 몸짓에서 현대인의 모습 속에 그림자처럼 왜곡된 병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듯하다. 병들고 무너진 사회의 근원적인 원질에 관한 점검을 촉구하고 있다. 막연한 인간성의 타락이라는 측면을 성적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부상시켜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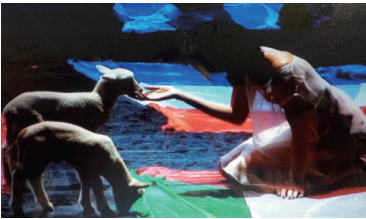
〈그림 11〉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왜곡된 성과 가치관에 관한 상징적 이미지



〈그림 12〉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휴머니티에 관한 회복과 반성에 관한 이미지

표류하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성적인 타락과 폭력으로 망가져 가는 인간성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간절히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반성적이고 휴머니티에 관한 회복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알록달록한 의상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국기임이 밝혀진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속을 상징하며 국기는 각 나라를 대변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들은 존속을 위해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정부를 우선시한다. 통합을 강조하기 보다는 권력을 독점하려하고 탐욕과 오만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퇴색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무대 위 수돗가에서 국기를 세탁하는 장면은 각각의 국가가 자신의 과오와 흔적을 깨끗케 하며 종말로 치닫게 된 과거에 관한 반성으로 읽혀진다. 타자화나 격리가 아닌 통합과 조화에 관한 메시지를 무용수들은 몸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적 만행과 배부른 오만이 가져온 국가적 현실에 관한 상징적 의미가 포진되어있다 하겠다.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자면 결국 인류의 자



〈그림 13〉 「그리고, 천년의 평화」 중 인간존재의 본질에 관한 고민과 순수성 회복에 관한 이미지



멸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며 휴머니즘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무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류 스스로가 저지른 과오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양보와 타협이 존재하는 세상으로의 복귀를 말하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것은 어린 양과 남녀 무용수이다. 동물을 안고 두 무용수는 무대 중앙에 등장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동물과 다른 이성적 존재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보호할 수 있는가? 결국 시간의 유한함 속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약하고 무능한 생물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고민과 동시에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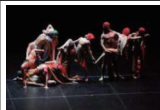


적 순수함을 포기함으로 불러일으켜진 현재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 대입하여 해석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고 반성 회개하자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라 하겠다. 양의 등장은 결국 인간의 속죄를 반영하는 것이며 삶이 있는 동안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며 내일이라는 희망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들 무용수 밖에 포진하고 있는 군무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 후방에 부동 자세로 서있다. 여기 군무가 과거에서 부터 이어져온 문명의 흔적을 의미하며 탐욕과 물질로서 상징화된다면 앞에 있는 두 명의 남녀 무용수는 정의와 정신으로서의 상징체이다. 부동과 동적인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본 장면은 상반된 서로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양면성을 드러내는 실체이다. 동시에 조명의 명암을 통해 정의라는 밝은 빛과 어둠이라는 어두운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여 힘의 지배논리를 말한다. 암울한 세상에 자유의 빛을 강조하는 형태를 확인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두 남녀 무용수의 역할은 세계를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간곡한 호소와 절규가 녹아져 있다. 국기가 바닥에 깔아진 공간은 새로운 사회에 관한 재건과 인간상에 관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어린 양을 돌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종교적 메시아와의 합일적 경험을 제시함으로 인간성에 관한 회복과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작품의 이미지를 기표로 정리하고 이에 관한 외시적 의미와 함의를 단락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 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기표와 외시적 의미

구분	이미지	기표	외시적 의미	함의	단락
1		텅빈무대 가스 이인무 무음악	핵가스와 복제 인간이 출현하 는 죽음의 도시	고독함과 절망 적 분위기 속 멸 망의 예감과 영 웅적 신화	재앙적 정 후와 디스 토피아적 이미지
2		장벽 군무 빠른 템포의 타 악기	약자와 강자가 구분되는 세상 약육강식과 부패 한 권력과 폭력 이 난무하는 곳	과욕과 지배욕, 그리고 물질문 명의 흔적	

〈표 1〉 작품에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기표와 외시적 의미

구분	이미지	기표	외시적 의미	함의	단락
3		생명체 솔로 삼인무 군무 느린 템포의 피 아노와 기계음	치명적 타자의 상실과 부재 그 리고 황폐화된 모습	인간의 이기심 과 기술의 과다 한 증식으로의 참혹한 결과	재앙적 징 후와 디스 토피아적 이미지
4		투명 비닐 군무 빠른 템포의 기 계음의 반복	황무지에서 모 든 것이 파괴된 혼돈의 세계	인류의 몰락에 관한 실체	상징적 이 미지를 통 한 계시록 의 예언적 함의
5		성경 군무 연주음과 기계 음의 혼재	무언가의 희망 을 불드는 사람 과 방황하는 이 들의 종말적 분 위기	종말에 관한 예 언의 진실	
6		알록달록한 천 군무 웅웅거리는 다 양한 소리	부패하고 타락 한 성적 표현의 보고	성적 이기와 폭 력에 관한 반성	
7		가면 이인무 빠른 템포의 기 계음과 몸이 부 닥치는 소리	독재자, 폭군의 비정상적 소통	인간의 폭력성, 인간애의 상실 에 관한 물음	인간 존재 의 물음을 통한 휴머 니즘 복원
8		국기 수도관 격렬한 군무 음악의 혼재	강자, 권력, 불 신에 관한 저항 과 반성	신뢰, 정의의 실 현	
9		국기가 깔린 무대 어린양 이인무 종소리	문명의 재건과 평화와 소망에 관한 기대감	인간성 보존으 로 사랑에 관한 회귀	

종말은 이 시대에 보편적이고 유희적이며 동시에 양면적이다. 향후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한 숙고나 계획보다는 현존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개념화되기도 한다. 아포칼립스라는 의미를 인류의 종말로 해석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돌아보는 새로운 시작으로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행하여온 인간의 포악함과 폭력을 소멸하고 인간성을 회복함으로 인류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더할 수도 있다. 신의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의존으로 나타난 아포칼립스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재의 본질과 과오를

인식한 사람들에게 의해 스스로 자정을 통해 정신적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아포칼립스는 당연한 연결이며 발명, 발전, 문화는 이미 아포칼립스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일지 모른다. 프렐조카주는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 아포칼립스의 개념을 인류의 종말로서 뿐 아니라 능동적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개개인에 관한 호소와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가 강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스스로 자성의 노력과 기초를 회복하여 구원,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를 춤 무대에 담고 싶었던 것이다.

V. 결론

아포칼립스적 소재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에서 끊임없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호기심이자 상상력에 관한 표출이었다. 근래에 들어 많은 예술작품과 대중매체는 사회의 부도덕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가져올 냉전이나 컴퓨터의 복제, 바이러스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프랑스 안무가 앙젤랭 프렐조카주도 2010년 러시아에서 불쇼이 발레단과 프렐조카주 무용단과 협작으로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초연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부터 영감을 받은 본 작품에 관하여 주목하였다. 간략하게 본 작품에서 나타난 아포칼립스적 이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재앙적 징후와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를 여러 장면과 이미지를 통해 무대화하였다. 또한 상징적 이미지를 통한 계시록의 예언적 함의를 포함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 존재라는 물음을 통한 휴머니즘 복원을 제시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세상의 종말에서 이상을 잃고 표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삶에 관한 진지한 철학적 반성과 미래에 관한 소망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성경 속의 방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이미지로 집중력 있게 끝나가며 폭력과 파괴에서 희망과 부활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결국 세계의 종말을 요한계시록과 같은 세기적 증표를

대입하여 아포칼립스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작품은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를 미래에 관한 이중적인 딜레마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작품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초반에는 어두운 조명이나 차갑고 기계적인 음악과 혼돈의 움직임이 강조된 반면에, 뒷부분의 작품은 따뜻한 색채의 조명과 밝은 에너지의 움직임 등을 통해 미래의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래에 관한 예감은 인간의 무절제, 자원 낭비, 전쟁으로서의 폭력으로 점철되고 미래에 벌어질 파멸을 예고하며 이를 경고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애의 복원과 사랑으로 살아남은 인간들이 재건하여야 할 도시를 꿈꾼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현재에 관한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장된 명분으로의 근대, 문명, 계몽 등에 관한 인간의 역사적 의미와 이에 따른 정형화로 불러일으킨 후유증이 보여준 모순성을 지적하며 인간성 회복과 휴머니즘적 정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삶이라는 고독하고 힘겨운 투쟁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며 스스로 구원받을 존재라는 희망을 던져준다는 것이다. 본 작품은 인류 역사를 통해 회복이라는 묘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관한 여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인간 근원에 내재한 종말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은 다양한 해석으로 탄생되었는데, 그의 작품은 시대를 돌아보고 발자취에 관하여 고민하는 작가의 냉철한 시각과 이 시대 현대인들의 흔적을 담고 있는 철학적 성격의 수작이라 말할 수 있겠다. 향후 본 논문이 아포칼립스에 관한 다채로운 조망과, 본문에서 다 밝히지 못한 안무가에 관한 또 다른 작품연구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멜컴 불(2011). 『종말론』. 이운경(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1.
 로렌스 E. 조지프(2007). 『아포칼립스』. 강미경(역). 서울: 황금나침판, 2012.
 이지원(2013). 『춤 테마로 읽다』. 서울: 두술.
 유진 웨버(1999). 『세계사에 나타난 종말의 역사』. 김희정(역), 서울: 예문, 1999.

- 고맹입(2005). 아포칼립스 이미지와 영상미학. 『카프카연구』, 15: 69-90.
- 김혜연(2011). 투사 삼손에 나타나는 아포칼립스적 현재성의 이중적 의미. 『밀턴과 근세영문학』, 21(2): 361-374.
- 목승숙(2006). 이카로스 시대의 아포칼립스. 『뫼히너와 현대문학』 27: 58-89.
- 박종소(2005). 블라지미르 솔로비요프의 창작에 나타난 종말론적 요소. 『러시아연구』, 11(2): 61-95.
- _____(2002).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의 아포칼립스적 성격. 『러시아연구』, 12(2).
- 신순철(1995). 공상과학영화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적 미래적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2012). 앙젤랭 프렐조카주의 「이것은 나의 몸이다」에 나타난 타나토스 이미지. 『무용예술학연구』, 39(6): 111-136.
- 진주현(2011).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신화론적 의미구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최승현(2007). 막스 베크만의 아포칼립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31회 「MODAFE 팜플렛」.
- The American Heritage College Dictionary*(third Edition)(1993), NY: Houghton Mifflin Company.
- 「포즈댄스시어터 작품영상모음집」(2002-2003)
- <http://www.impulstanz.com><2013.5.24>
- <http://www.indianexpress.com/picture-gallery/apocalypse---now-and-forever>
<2013.8.1>
- <http://www.preljocaj.org><2013.7.19>
- <http://www.youtube.com/watch?v=femZgThWbJw><2013.8.2>
- <http://www.youtube.com/watch?v=JEfUiP9x3n0><2013.4.19>
- <http://www.youtube.com/watch?v=yI7IBTWKlpQ><2013.7.2>

논문투고일	2013년	8월	13일
심사일		8월	19일
심사완료일		8월	26일

Abstract**Visualized Research into the Apocalyptic Work of Angelin Preljocaj -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

Jiwon Lee

*Lecturer in dance**Sungkunkwan Univ, Korean Universal Univ. of Arts*

Angelin Preljocaj is a French choreographer who conveys powerful messages along with strong movements. There is no doubt that he is a 'philosophical choreographer' that was born into this era and who began speaking of this era. In 2010, he brought to the audience a work titled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 This performance having premier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Bolshoi Ballet and the Angelin Preljocaj Ballent in Russia came to Korea as it was chosen as the 2012 MODAFE finale.

Angelin Preljocaj once interviewed that the dancer's movements came from 「Revelations」 of the bible. This research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work under the theme of 'Apocalypse', one of the words used most frequently today. The meaning of Apocalypse is the end or destruction of the human race and this work encompasses his viewpoint or this era's take on the world.

This is a story inspired by the Apocalypse in Revelations. The work embodies a dualistic view including light and darkness, machinery and humanism, and destruction and revival. Thus, it induces us to consider the contrasting image of good and evil. This research, in brief, deals with the work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prophesized implication of Revelation through symbolic images", "Omen of a catastrophe and dystopic images", "Restoration of humanism upon questions of human existence." As this performance presents not only destruction but positive vision, Angelin's utopic construct and a new exit for the current world is identified.

Nonetheless, the truth the author wishes to convey is self-reflection of the present. Plans and predictions of the future is shown as a series of violence, namely, intemperance, waste of resources, and war. Therefore, Apocalypse implying both

the present and prediction of a abstract event in the future is a warning that we must bear. It cautions us that the future holds a dilemma and human beings that survive due to restoration of humanism and love will live in a regressed city placed in nature. His direct and truthful movement and philosophical thinking dissolved in the dancer's movements represents our era and can be understood as a proposition of the way we should live.

keywords: Angelin Preljocaj(앙젤랭 프렐조카주), Apocalypse(아포칼립스), Hyun Young Woo(우현영), 「The Last Man」(「라스트 맨」), 「And Then, One Thousand Years of Peace」(「그리고, 천년의 평화」)